

▶ 매일 INDEX



12면

1조7000억... 방탄소년단
경제적 효과도 다이너마이트'

2020년 9월 8일 화요일(음 7월 21일) 제261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정대로

14일부터 8일간 전북서 개최... 기술경기 중심 축소
7개 경기장 분산... 50여개 직종 전국 1800여명 참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인문계의 '수능시험'이라 할 수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전북에서 열린다.

지난 6일 전북도, 고용노동부, 전북 도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한 결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동입장을 통해 밝혔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도내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에서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기술경기 중심으로 대회 규모를 최소화로 축소해 열리게 된다.

다면 대회 시작장이나 대회 중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올해 대회는 중단 또는 취소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한 속에서 진행되는 부담이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길게는 3년이상 준비해온 선수들의 땀과 노력,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등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엇보다도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중에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선수, 심사위원, 진행요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지도교사와 학부모 등 외부인은 대회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최대한 사람들이 운집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시작 2주전인 9월 1일부터 모든 참가자에 대해 자기진단 앱을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사전조회해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참가를 제한한다.

경기장 출입시에는 경기장 입구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열화상카메라 빌열 체크→인식표를 부착하고 시험실 입구에서 연무소독→손소독→체온계 밀열체크 등 꼼꼼하게 체크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기장별 50인 이내 출입통제, 선수간 이격 거리 2m 확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 선수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회종 종식은 도시

락으로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선수간 또는 참가선수 간 감염 방지를 위해 선수단의 경기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관리전담자를 지정 관리하며 일과 후 외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직업훈련과 기능수준 향상을 위해 열리는 대규모 전국행사로 올해는 16년만에 전북에서 열린다.

오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군산시민금관전선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50여개 직종에 전국에서 1,8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입장자에게는 금메달 1,200만 원, 은메달 800만 원, 동메달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분야 자격증 실기시험 면제 특전과 직종별 상위득점자 2명(팀)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긴 시간동안 준비해온 선수들과 선수들의 꿈과 도민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꼼꼼하게 방역에 집중해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강도 조치를 잘 따라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끝까지 고강도 방역조치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방역 협조 감사... 아직 긴장 풀 때 아냐"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끝까지 동참 당부

김승수 전주시장이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강도 조치를 잘 따라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끝까지 고강도 방역조치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총 25명이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가 9월 들어서는 단 1명 발생하는데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시장은 이에 "지난 2주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집합금지에 적극 참여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협조한 사업장에 오늘 당장 휴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휴업지원금이 지급된 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 사업장 중 2단계 조치 시행 이전 휴·폐업한 업소 등을 제외한 1169곳이다.

행정명령과 관련, 대부분의 업소는 휴업에 동참했고, 고발까지 이어진 업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휴업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일자리를 잃은 업주와 종사자 82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순환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상호영이 공개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70여명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돋기로 했다.

시는 2주간의 2단계 조치 이후에도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방역을 펼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직사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 최후의 보루로 남아 끝까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킬 것"이라며 "생활 속 방역수칙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농특산물 '거시기장터' 통큰 할인

추석전 최대 60%↓... 24일까지

전북도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대표 쇼핑몰인 거시기장터(jtplaza.com)에서 '한가위 큰 장터 기획전'을 오는 24 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화에 맞게 도는 지난 6월부터 거시기장터 모바일 플랫폼 추가 개발과 11번가 전북 상품관 운영 등 전북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농가와 제조사업장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모션 확대 및 택배비 등 공익적 지원도 추진해오고 있다.

개편 이후 회원도 매월 100여명씩 증가하고 전년 대비 페이지 접속 비율이 최대 200%까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블로거 홍보 등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도 거시기장터 상품의 우수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거시기장터 추석 기획전은 코로나19 확산 및 폭우,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불안함과 소비위축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이 청정 전북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마련됐다.

행사는 도내 생산 및 제조 29개 업체 2,300여개 상품에 대해 기본 30% 할인과 다수 상품 배송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량 구매와 입점 문의는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03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거시기장터 입점자의 자발적인

할인과 지원을 통해 시중가 대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좋은 기회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재해로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전북 상품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할인행사를 이용해 실속 있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할인행사 기간 연장 등 생산자와 고객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 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시기장터는 상품 100원 구매 이벤트와 무료 시식 체험단 등 도내 우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대량 구매와 입점 문의는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03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